



성인봉 (聖人峰)

김장수

동해 바다 한가운데 다섯손가락을 짝 딛고 한껏 하늘로
추스러오른 불가사리.

바다속 깊이 주둥이와 배를 묻어 난류와 한류에 실려 오는 갖
은 영양을 지열과 함께 빨아 올려서는, 항문을 등에 붙여 하늘
에다 대어 놓고 분화구를 여는 바다의 별, 울릉도.

둘레에는 온통 성채를 둘러쳐서 인간을 근접하지 못하게 해놓
고, 혼자 밤하늘의 별무리와 사운거리는 성스러운 거인 성인
봉이 창파에 떠서 거기 군림하느니...

성인봉(983.6m)은

말하자면 그 불가사리의 등에 붙은 향문인 셈이지만, 그 봉우리 하나를 솟구치게 하기 위하여 울릉도는 또 깎아지른 낭떠러지로 그것을 한껏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경사분포가 30도에서 60도로서 평균 45도에 육박하니, 그것은 평균 20도 밖에 안되는 한라산의 2배를 훨씬 넘는다. 방과제를 둘러치는 등 모두 바위벼랑으로 둘러싼 이 섬에 어디 배가 가닿을 한뼘 평지를 허락하더냐 말이다.

게다가 면적은 불과 72.5평방킬로로서 제주도의 1,829.57평방킬로의 25분의 1도 채 안되는데, 거기 솟구친 봉우리는 한라산 높이의 절반보다 더 하니, 말하자면 울릉도란 제주도를 손아귀에 바짝 쥐어 오물어 붙인 형국이라고나 할까. 뿐만 아니라, 이 섬은 여러모로 제주도와 비교된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30분쯤, 제주도(33.30)보다 4도가 높으니 거리상으로는 444.548km 나 북쪽에 위치하면서도, 연간 평균기온은 12도로서 제주도의 14.7도와 비슷하고, 평균습도도 77도로서 제주도의 80도와 거의 맞먹는데, 강수량은 오히려 1,485.2mm로서 제주도의 1,439.9mm보다 더하다.

안개만이 아니라, 성인봉에 오를수록 발아래가 더 질척거리는 것도 이 습도와 강수량 탓이지만, 그것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흐르는 한라산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또 제주도에 는 비행장이라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평지가 허락되지 않으니, 파도만 높았다 하면 관광객이 발을 묶이다 뿐인가, 온 섬이 함께 손을 놓는다. 한라산 백록담에서는 더러 달을 보았다는 이가 있는데, 여기 성인봉에 올라서서 바다를 보았다는 사람은 드물다.

해안선은 두고, 산줄기만 눈여겨 살피더라도, 울릉도는 성인봉을 중심으로 5각의 섬답게 다섯갈래 지릉으로 확실하게 짝여진 형국이다. 그 지릉들이 각각, 북동으로 뻗어서는 말잔등(967.8m)을 거쳐 그 끝에 두루봉(290m)을, 남동으로는 관모봉(561.7m) 끝에 망향봉(317m)을, 남으로 두리봉(488.3m) 끝에 가두봉(194.3m)을, 남서로는 탄갓봉(593m) 대등(566.1m) 끝에 투구봉을, 그리고 북서로 초봉(608.2m)과 향목령(297m) 끝에 바람받이 굴이라는 뜻의 돌올한 바위 대풍감(待風坎) 등으로 잘려져 있으니, 그것들은 흡사 불끈 쥔 주먹처럼 낭떠러지 위에 뿔겨져 솟아나 보인다. 이 다섯갈래 지릉은 강단지게 뻗어나가 그것들을 횡단하는 길은 거의 절망적이다. 현포에서 태하로 넘는 북서릉 끝머리 현포령에 찾길이나 있지만, 그 고개는 섬사람들도 넘나들기를 꺼려할만큼 경사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사정은 해안선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길이 나있는 곳이라곤 북면의 섬목에서 현포까지, 남서쪽에서는 사동에서 통구미, 그리고 남양에서 구바우까지 뿐, 아예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을 일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은 또 맑고 풍성하여 이것 또한 지질탐으로 한라산의 그 건천과 대조를 이룬다. 향나무, 바람, 미인, 돌과 함께 울릉도의 다섯가지 명물이라는 그 물줄기는 그러나 모두 길어봤자 성인봉에서 각각의 해안선과의 길이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중 긴 것이 정동천, 남양천, 태하천, 추산천으로 각각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지만 경사도가 심한 탓으로 그 짧은 길이에 비해 뜻밖에 저동천에 봉래폭포, 태하천에 복호폭포가 시원스레 걸려있고, 추산천 끝에는 그 물줄기를 이용한 수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런 험준한 지형지세에 또 뜻밖의 평원이 이 작은 섬의 북쪽 한가운데에 바다는 아예 모른다는 듯이 숨겨져있으니, 그것이 나라분지이다. 정확하게는 알봉분지와 구별되지만, 알봉쪽에 화구언덕(火口丘)의 구릉이 저있다뿐, 매양 칼데라(Caldera) 지형으로 이어져 북으로 흐르고 있다. 해발 300에서 500m 높이에 동서 약 1.5km, 남북 약 2km 에 걸쳐 벌어지는 이 15만평이나 되는 분지에는 인구랫자 16가구가 살고 있을 뿐이지만, 주거는 바람과 눈비에 대비하여 옥수수대로 우데기 외벽을 치고 너와지붕을 얹은 투막집들이다. 대개는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 또는 재배하여 생계를 잇고 있지만, 전호나물, 꼬치미 또 마늘 비슷한 명이, 당귀 외에, 미역취는 뿌리를 땅속에 두고 봄부터 쭉쭉 뻗어나는 이파리를 연간 4차례 정도 뜯어 찌서 말린다 한다. 그 밖에 봄에 씨눈을 심어 가을에 캐는 천궁은 본디 야생의 약재인데, 이즈음은 산아래 마을에서들도 재배하여 수확기에는 발동기를 돌려놓고 드럼통에 넣어 씻은 다음 썰어서 말리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해양성기후 탓으로 한지식물인 주목나무 향나무 외에도 이 섬에는 또 천연기념물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통구미와 태하의 그 향나무자생지와 또 그 태하의 솔송, 섬갓나무, 너도밤나무숲이며, 도동의 섬개야광나무, 섬댕강나무 또 나리분지의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들이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오징어야 물론 울릉도에서 새삼 명물이랄것도 없지만, 해안선이 바로 수심 몇백을 헤아리는 편이니, 여느 바다고기보다는 떠 다니는 오징어가 더 잘 잡힌다는 것이다. 한 개 1,500축짜리 30개만 매어 달아도 수천킬로와트가 되는 그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잡이의 본고장인 저동항은 그 야경이 휘황찬란하다. 그래서 산에 가서 뜯거나, 바다에서 건지거나 모두 돈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울릉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 한다.

울릉도는 그만큼 부자섬이 되었다. 그만큼 또 성인봉을 찾는 이도 많아졌다. 등산로도 이미 그날의 그 오솔길이 아니다. 환하게 트인 오르막길로 해서 대개는 도동이나 저동에서 올라 붙어 관모봉을 남쪽에 두고, 가파르고 질척한 등성을 숨가쁘게 타올라 정상에 이른다. 아니면 천부나 추산에서 나리분지를 거쳐 올라붙거나 하지만, 고즈넉한 나리분지에서의 하룻밤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물론 전자를 택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천부쪽으로 내려서서도 저동으로 가는 차편 배편을 걱정했지만, 이즈음 들어서는 그 접속시간에 짝을 맞추어 놓아 안심해도 된다.

죽면에서 104km, 지금 묵호에서 페리호로 불과 2시간 반이면 가닿는 이 섬은, 그러나 북반구의 화산활동이 멎게 되는 약 1만 년 전에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지질학자들은 말한다. 현재의 지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화산의 폭발은 아무래도 섬의 북으로 치우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리분지의 위치가 그렇고 또 이 섬에서는 비교적 벼랑으로 막혀있지 않는 북면 해안일대의 지형이 그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섬에 처음 들어선 선주민의 흔적도 북면에서만 산재한다. 한때 고려장터라 알려진 현포의 석굴은, 산속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여 45평기량으로 굴을 파서, 그 속에 돌담을 쌓고 목재는 일체 쓰지 않으면서 창문의 흔적마저 있으니, 원시 생활주거임이 확실하게 들어났고 또 전설같이 흩어진 4개의 석주 언저리의 고분에서 돌도끼 같은 석기며 구슬, 죽기 따위가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 태하동에는 그 옛날부터 항해안전을 빌어오는 신당이 그대로 서있고, 석각문(石刻文)으로도 조정 관리의 내왕이나 수토사(搜討使)의 입도(入島)를 기록한 흔적도 있다.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고려본기에 있듯이 이미 1,500년전부터 주민이 살고 있었고,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는 그때 우산국이었던 이 섬을 이사부가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은 계교로, 목사자를 앞세워 쳐들어가서 신라로 귀속시켰다고 전한다. 고려때는 정종 12년(서기 1046년) 6월, 동남해 연안에 성을 쌓아 해적을 막으면서 이 섬을 공도(空島)로 만들었으나 잦은 왜구의 도벌과 어로를 보다못해 조선조 숙종 22년(서기 1696년)에는 어부출신인 안용복과 이인성 등이 들어서서 몰아내기도 했었다. 울릉도에 일본인 해적이 얼마나 득실거렸는가 하는 것은, 고종 21년(서기 1885년) 4월에 왜선 만리호의 침범이 있었을 때, 일본정부와 담판 끝에 철수해간 일본인이 500명이나 되었다니, 그로써도 그 사이 소식을 알만 하다 할 것이다. 그러다가 고종 19년(1882년)에 개척령을 선포하면서 설치한 도장(島長)제도도 광무 9년에 폐지하고, 1883년에 이주해간 16가구 54명의 개척민을 기초로 군으로 승격시켰다가 다시 도로 경북에 이관시키고 도사(島司)를 두었는데, 1949년 이후로는 또다시 울릉군으로 복귀하여 오늘에 이른다.

울릉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조선조 정조 11년 서기 1788년에 프랑스배가 이 섬을 발견하자 승무원중 처음 본 '따줄레'의 이름을 따서 섬 이름으로 삼고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독도는 그보다 60년후 현종 15년 서기 1849년에 이

역시 프랑스배 ‘리앙클’이 발견하고, 그 배이름을 따서 해도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만큼 근세사에 울릉도는 기구한 운명을 겪은 섬이다. 제정러시아의 대장성이 편찬한 ‘한국지’에 적힌 바만 보아도 그렇다. ‘서기 17~19세기에 걸쳐 쇄국주의를 고수하여 변경에는 진영을 설치하여 외국과의 내왕을 차단하고 일부러 해안지대를 황무하게 하여 외국선원의 욕심을 끊고자 했으며, 원양항해도 아예 엄금했으니, 한국의 항해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가 절해고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로써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지금 울릉도를 일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아득히 죽변만만 바라보고 그대로 동백꽃이 되었다는 섬 아가씨의 전설도 이미 옛말이다. 안개속에 갇혀 뱃고동소리만 처량하게 들렸다는 것도 옛일이다. 돌아오는 갑판에서 돌아다보는 울릉도는 오징어잡이배의 집어등들이 온 섬을 불야성처럼 환하게 되비치고 있는 동해바다의 보물섬이다.

그래서 오늘 울릉도는 바다의 불가사리만도 아니다. 몸뚱어리는 곰처럼 살이 오르고, 코는 동해를 빨아올리는 코끼리, 다리는 호랑이같이 억세니, 차라리 그것은 그대로가 쇠를 먹고 산다는 상상의 짐승, 지난 날의 악몽을 물리치고 온갖 사특한 기운은 쫓는다는 바로 그 또 하나 미지의 불가사리인지 모른다.

